

익산시 신흥저수지 가을꽃정원 개방

천만송이 국화축제 대비 조성

코스모스 등 가을꽃 12만점 식재

산책로 개방 '수변도시 익산' 홍보

익산시가 신흥근린공원 내 신흥저수지를 활용해 조성한 행복정원과 가을꽃정원이 오는 11월 14일까지 개방된다.

이 정원은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마련됐다.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조성된 가을꽃정원에는 초록풍경 수변 코스모스, 국화, 꽃백일홍 등 가을꽃 12만여점이 식재돼 있고 국화 조형물, 각종 포토존 등도 설치돼 있다.

올해는 저수지를 따라 이어진 산책로를 임시적으로 전면 개방해 '수변도시, 익산'을 위상을 알린다.

임시 개방된 신흥저수지는 1954년도에 조성됐으며 상수도공급을 위해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시민의 생명줄이다.

부지면적 30만2000㎡ 저수면적 15만6000㎡로 총저수량은 100만에 이른다.

시는 이처럼 드넓고 소중한 호수의 풍광을 가까이 만나 볼 수 있도록 신흥저수지 수변에 단절된 구간 없이 순환형 산책로 2.1km를 조성했다.

이와 함께 약 5740㎡면적에 가을꽃정원을 조성



신흥근린공원 내에 조성된 행복정원과 가을꽃정원.

〈익산시 제공〉

하고 국화를 비롯한 코스모스, 꽃백일홍, 아스타 등 다양한 가을꽃 7만8000여본을 식재해 수변도시의 아름다움을 덧입혔다.

태극기 무늬 화단과 사랑고백과 프로포즈 토틀이, 풍차 목동 염소 사슴 등 동화나라 포토존 등으로 볼거리가 다양하다.

해당 구간은 시민들의 안전과 정수시설 보호를 위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방 기간에는 안전초소 4곳을 설치하고 요원을 배치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산책로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익산시 관계자는 "도심 속 수변공간인 신흥저수지와 시민들과의 새로운 만남 그리고 핑크블리, 형형색색 국화를 통해 시민들이 잠시나마 위로받고 가족·연인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남원시 화장시설 승화원 최신식 시설 탈바꿈

97억원 들여 이달 착공 내년 준공

남원시의 승화원이 최신식 시설로 탈바꿈 된다. 현 승화원은 38년째 가동 중으로, 각종 시설이 매우 노후화된 상태다.

이번 승화원 신축 공사에는 국·도·시비 포함 총 사업비 97억원이 투입된다. 지상 2층, 화장로 4기, 고별실 2실, 유족 대기실 4실의 규모로 건립된다.

지난 26일 착공식을 가졌으며 2022년 12월 준공될 예정이다.

남원시는 지난해 7월부터 올 2월까지 약 7개월 간 설계 실시 등 신축을 위한 사전 절차를 모두 완료했다. 승화원 준공이 완료되면, 그간 지적돼 온 화장로 및 시설 노후화, 편의시설 부족, 운영 비효율성 문제가 해결돼 이용객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원주 남원시장은 "기존 화장 시설은 건물 준공 시까지 운영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면서 "협오 시설이라는 인식을 탈피해 이용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우수한 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오는 2022년 12월 준공 예정인 남원시 승화원 투시도.

고창군, 축산악취 발생 등 33건 적발

고발·개선명령·과태료 부과 조치

고창군이 가축분뇨관리시설에 대한 정기·수사·합동 지도점검을 통해 지역 내 축산악취 발생 및 각종 위반행위 33건을 적발했다.

고창군은 관내 가축분뇨관련 141개소를 점검해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로 8건, 공공수역 무단유출 행위 10건, 가축분뇨 관리기준 위반 15건 등 모두 33건을 적발해 고발,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관리기준 미준수, 가축분뇨재활용시설(액비유동센터 등) 가축분뇨 부적정처리, 가축분뇨나 퇴비를 야적·방치하거나 하천 등으로 유출행위,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시행과 연

계한 퇴비액비화기준검사 결과 기록·보관 절차 미준수 등이다.

고창군은 축산악취 근절을 위해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사업비 13억원을 투자해 양돈농가 10개소에 대해 탈취탑, 바이오커튼, 미생물자동분사시설, 시설발폐화 등 악취저감시설을 지원했다.

올해도 2억원을 투자해 가축분뇨재활용시설과 양돈농가에 대해 탈취탑, 미생물자동분사시설, 미생물제 지원 등 악취 개선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성수 고창군 생태환경과장은 "가축분뇨와 악취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축산악취 문제를 최대한으로 해결하고 이를 위해서는 축산농가에서도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순창군 한국어교육 연계

다문화가정 주거환경개선 지원

순창군이 관내 다문화가정의 한국어교육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연계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순창군은 올해 3월 개강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집합 한국어교육'과 '찾아가는 한국어학당' 수강자 총 107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지원사업의 대상이 될 상위 10개 가정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국어교육 출석일 수를 마일리지로 적립해 우수자에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3월~9월 말까지 진행된 한국어교육 수업 참여율과 가정형편 등을 점수표로 환산, 선정된 가정에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36개 가정이 혜택을 받았다.

선정된 가정은 도배와 장판, 화장실 보수 등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이나 책상과 의자 구입 등 자녀공부방 조성에 가정당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받는다.

지역에서의 안정 정착에 대한 결혼이민자들의 의지를 다지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은 바쁘고 지치는 가사생활과 자녀양육에도 불구하고 참여열기가 높아 호평을 받았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kwangju.co.kr

군산시 상수도 현대화 3년...누수 165만t 감소



블록구축공사 B-LINE 관 매설 작업.

〈군산시 제공〉

2024년까지 총 600억원 투입

군산시가 수돗물 유수율 향상과 고품질 수도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군산시는 총사업비 600억원(국비 318억, 도비 60억, 시비 222억)을 투입해 노후 불량수도관 교체, 누수탐사·복구, 상수관망 블록시스템 및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등 상수도 운영·관리 시스템과 노후 시설물을 현대화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345억원을 투입해(2019년 60억, 2020년 90억, 2021년 195억) 노

후관로 교체 15.6km, 블록구축 71개소, 누수탐사 및 복구 375건 등 깨끗한 수돗물 공급하고자 위해 순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김봉곤 군산시 수도사업소장은 "2019년과 2021년 현재 누수량을 비교하면 연 165만t이 줄었으며, 16억 5000만원의 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집계됐다"라며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인 2024년에는 누수량이 연 628만t이 감소해 연간 62억 8000만원의 비용이 저감될 것으로 추정되며, 10년 이내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 이상의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정읍시, 국토부 건축행정 평가 최우수 기관

정읍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21년 건축행정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건축 행정평가는 국토교통부가 1999년부터 매년 지자체 건축 행정의 건설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지도·점검하고 종합 평가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건축 행정 절차의 합리성과 건축 관련 안전관리, 유지관리 적정성, 건축 행정 개선 노력 등 건축 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그 결과 건축 행정평가에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5개, 기초 228개) 중 일반 부문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시는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예방과 공동주택 안

전 점검 등 사전 예방 활동으로 시민 안전과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하는 건축 행정을 펼쳐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구 건축물 카드 대장의 전산화를 통해 문서의 보존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신속한 건축 민원 처리를 위한 건축물 카드 대장 전산화 사업을 추진한 결과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이번 우수 지자체 선정은 건축 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